

학습 활동

「도도한 생활」



1 「도도한 생활」을 읽고,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.

(1) 서울에서 ‘나’에게 벌어지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.

피아노와 함께
서울에 있는 언
니의 반지하방
으로 이사함.

‘나’는 피아노 건반
을 눌러 보지만, 피
아노를 치지 말라
고 했던 집주인이
찾아와서 더는 피
아노를 치지 못함.

예시 답 폭우로
인해 집 안으
로 들어오는
빗물을 퍼냄.

→ 돈이 필요하다는
아빠의 전화가 오
고, 언니의 예전
애인이 찾아와 고
꾸라짐.

→ 예시 답 물에 잠겨
가는 방 안에서
피아노를 치.

1 (2) (1)과 같은 사건 전개 속에서 '나'가 느꼈을 감정이 어떠할지 말해 보자.

예시 답 **암울함, 불안함**

2 다음은 「도도한 생활」에 대한 평론이다. 이 글을 읽고,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.

(1) 윗글을 바탕으로, 이 작품에서 ‘피아노’가 지니는 의미를 말해 보자.

예시 답 ‘나’의 자존감(자부심)을 지켜주는 대상

2 (2) 이 작품의 제목을 ‘도도한 생활’로 붙인 까닭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토의해 보자.

예시 답 • 도도하지 않은 ‘나’의 생활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다.

• 삶 속에서 도도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다.

3 다음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소설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을 설명한 글이다.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전 소설과는 다른 「도도한 생활」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.

예시 답 1990년대 이전에는 거대한 역사 속에 서 있는 인물들을 탐구했다면, 「도도한 생활」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의 일상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. 주인공 ‘나’가 아끼는 피아노나 삶의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반지하방이라는 공간은 ‘나’에게만 의미가 있는 일상적인 것으로, 이전 시대의 소설 속에서 역사적·이념적 지향성을 지녔던 소재나 공간과는 다르다.

4 모둠별로 이 작품의 뒷이야기를 창작해 보고, 창작한 이야기를 공유해 보자.

활동 방법

- 모둠별로 모여서 어떻게 뒷이야기를 전개할 것인지 논의한다. 이때 뒷이야기는 원작에서의 인물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한다.
- 각 모둠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방식으로 집필한다. 반드시 모든 모둠 구성원이 한 번 이상씩 집필에 참여하도록 한다.
- 모둠에서 집필한 뒷이야기를 다른 모둠과 바꾸어 읽는다.
- 모둠의 대표가 나와서 모둠에서 쓴 뒷이야기에 담긴 의도와 주제 의식을 발표하고, 질의와 응답을 통해 서로의 감상을 공유한다.